

인도

단기 증시 조정에도 견조한 외국인 직접투자

- 단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 지속. 거대한 내수시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
- 외국인 직접투자(FDI), FY26년 전년 대비 17.6% 증가한 94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직접투자는 단기적인 주식시장 변동성보다는 중장기 사업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향후에도 인도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인도 증시, 선행 P/E 역사적 평균 대비 -2표준편차 하회. 밸류에이션 매력 확대

현대차그룹, 인도에 155억 달러 중장기 투자계획 발표

현대차그룹은 지난 13일 인도에 2026~2032년 총 155억 달러를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2025년 10월 발표한 FY2030년까지 4,500억 루피(당시 환율 기준 50.7억 달러) 투자계획과 달리, 현대차·기아 및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포괄하는 그룹 차원의 투자전략이다. 이번 발표에는 인도 R&D 센터 및 시험주행장에 7억 달러를 투자하고, 현지 투자 집행과 전략적 협력을 총괄할 전담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두 투자계획은 투자 기간과 대상 사업의 범위가 달라 이번 발표가 기존 계획 대비 실질적인 투자 규모 확대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룹 차원의 중장기 투자전략이 제시되고, R&D 인프라 확충과 현지 투자 전담 조직 설립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현대차그룹의 인도 시장에 대한 중장기 투자 의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표 1. 현대차그룹의 인도 투자계획 비교: 2025년 vs. 2026년

구분	2025년 발표	2026년 10월 발표
발표일	2025년 10월 15일	2026년 10월 13일
발표 주체	현대차 인도법인(HMIL)	현대차그룹
투자금액	50.7억 달러(4,500억 루피)	155억 달러
투자 기간	FY26~FY30년	2026~2032년
주요 분야	R&D, 신차 개발, 생산시설 확충	생산시설, R&D, 공급망, 미래 모빌리티
투자 범위	현대차 인도법인 중심	현대차·기아 등 그룹 차원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에 주목

인도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글로벌 기업은 현대차그룹뿐만이 아니다. 최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와 AI·클라우드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스즈키와 토요타는 자동차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폭스콘과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은 전자부품과 반도체 관련 생산·연구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표 2. 최근 5년간 글로벌 주요 기업의 인도 투자계획 발표 현황

기업	국가	발표 시점	발표 투자액 (억 달러)	투자 기간 및 주요 내용
현대차그룹	한국	2026.10	155.0	2026~2032년. 자동차 생산능력 확대, R&D, 부품 공급망 및 미래 모빌리티
아마존	미국	2026.6	480.0	2030년까지 인도 전체 사업 투자계획. 2025년 12월 발표한 기준 350억 달러에 130억 달러 추가
스즈키	일본	2026.3	10.8	구자라트주 신공장 1차 생산라인 투자. 연산 25만 대, 2029년 가동 목표. 토지 취득비 별도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2025.12	175.0	2026~2029년. 데이터센터, AI·클라우드 인프라, 인력 양성 및 운영
구글	미국	2025.10	150.0	2026~2030년. 비사카파트남 AI 허브, 데이터센터, 해저케이블 및 전력 인프라
폭스콘	대만	2025.5	14.9	인도 Yuzhan Technology 자회사 증자 및 전자부품 생산기반 확대
토요타	일본	2024.7	23.9	마하라슈트라주 자동차 신공장 투자 MOU. 주정부 발표 투자 규모. 2029년 상반기 생산 개시 목표
마이크론	미국	2023.6	8.3	구자라트주 반도체 조립·검사시설 투자. 정부 지원 포함 총사업비 27.5억 달러
애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미국	2023.6	4.0	4년간 벵갈루루 반도체 장비 공동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자료: 언론 자료, 각 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모디 인도 총리 회동(26.10.13)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나델라 MS CEO와 모디 인도 총리 회동(25.12.9)



자료: 언론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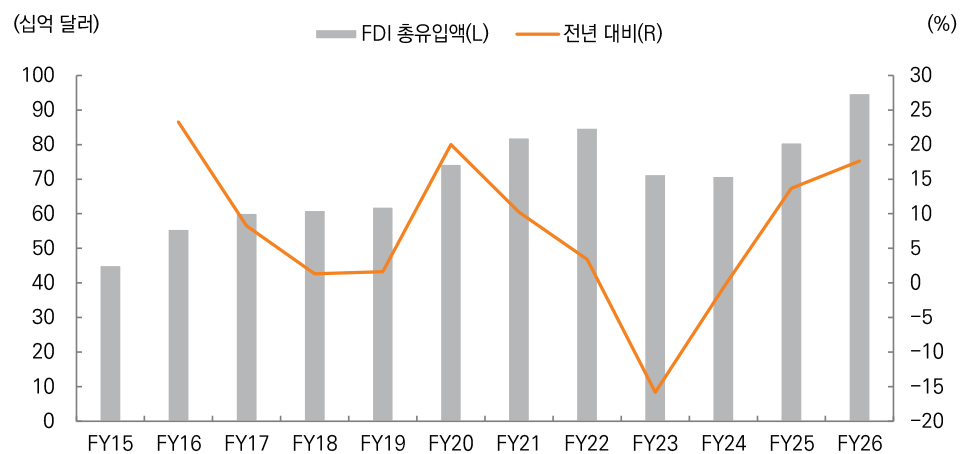
거대한 내수시장과 첨단산업 성장 잠재력이 투자 확대 견인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장기 경제 성장 잠재력에 기반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 도시화 진전 등에 따라 자동차와 소비재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인도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AI·데이터센터·반도체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는 인도가 내수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투자처이자 첨단산업의 주요 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에도 직접투자 유입은 확대

최근 인도 증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은 확대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에 따르면 FDI 총유입액은 FY24년 709억 달러에서 FY25년 806억 달러로 반등한 데 이어 FY26년에는 전년 대비 17.6% 증가한 94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직접투자 확대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장기 경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직접투자는 단기적인 주식시장 변동성보다 중장기 사업전략에 기반하는 만큼, 향후에도 인도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3.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유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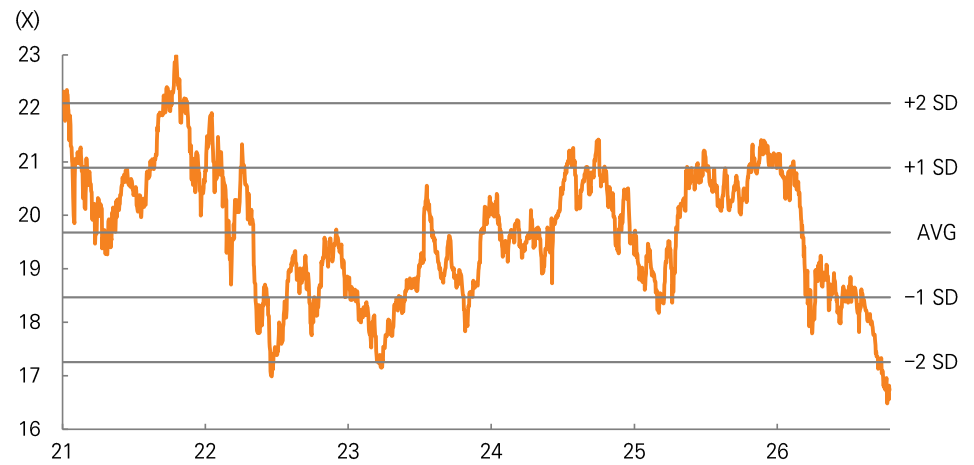
자료: RB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 확대

한편, 인도 증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 등으로 조정을 받으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현재 Nifty50 지수는 12개월 선행 P/E 기준 16.7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평균 대비 -2 표준편차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과 경제성장 둔화 우려, 엘니뇨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 등으로 기업이익 추정치가 추가 하향될 위험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인도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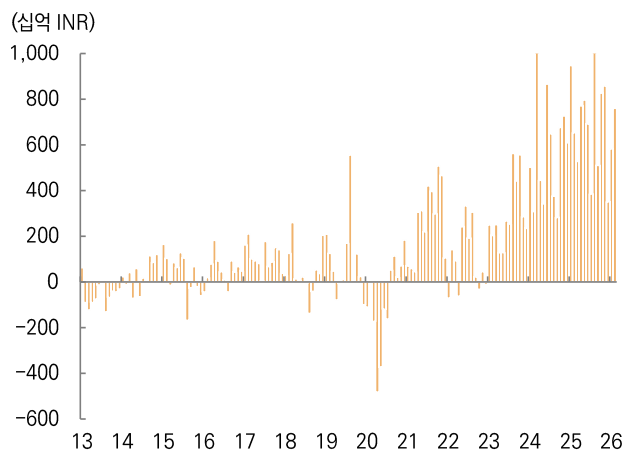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와 국내외 금리 변동성이 증시 회복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FY27년 2분기 실적 발표가 향후 주가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견조한 이익 성장세가 확인되고 추가적인 실적 전망 하향이 제한될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인도 증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과 기업이익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그림 4. Nifty 50 P/E 밴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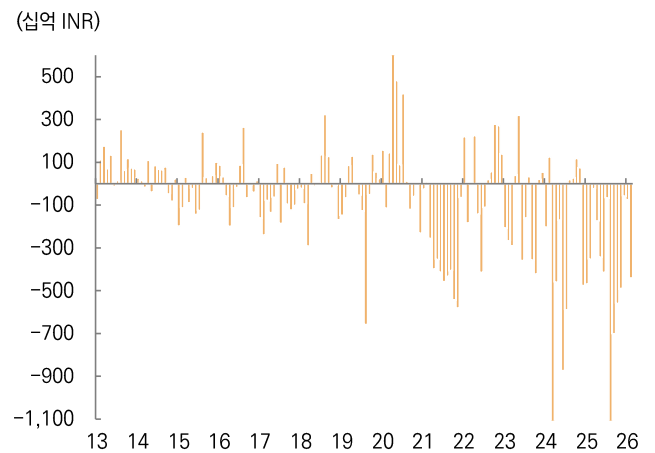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국내기관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해외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